

“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시민 찾아요”

서울시 ‘서울복지상’ 후보자 공모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서울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서울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개 분야에서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립에 성공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와준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학계와 전문가, 장애인 단체와 지난해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사자 4명과 인권증진 지원자 2명 등 총 6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장애인 주간인 4월 20~26일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hik1@

국립중앙과학관 초·중·고 AI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과학관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탐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AI 자율탐구 프로그램과 학교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중·고 학생과 동아리를 모집한다.

참여 학생은 과학관이 제시한 탐구 과제 8개 중 1개를 선택해 6개월 동안 자율탐구하고,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등은 학생들에게 매월 1회 직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관은 참여 학생에게 하반기 개최되는 1박 2일 인공지능 청소년 캠프의 우선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탐구성과 학생에게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상 등도 수여할 예정이다.

또 경진대회 준비 과정에 참여할 초·중·고등학생 25명을 모집한다.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각종 과학 경진대회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으로 출품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도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선정된 학교 동아리(총 15개)는 AI 기초, 활용, 심화 3개 과정 중 1개 체험과정을 선택한 후 연중 희망하는 날에 과학관에 방문해 맞춤형으로 수강할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아워홈 진천 재난대책본부에 ‘지리산수’ 3만병

아워홈이 중국 우한 교민들이 격리돼 있는 충북 진천군에 자사 생수를 지원했다.

아워홈은 지난 6일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아워홈 지리산수(330ml)’ 3만병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구호 물품은 진천군 현장 상황실 근무자

와 경찰관, 의료진, 지역봉사자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인력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지원 물품이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배상면주가 과실주 ‘심술 알쓰’ iF 디자인상 수상

배상면주는 9일 저도수 과실주 ‘심술 알쓰(사진)’가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0’의 포장 부문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포럼 주관으로 시작한 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심술 알쓰는 병이 아닌 파우치 포장에 기존 전통주 제품과 달리 재치 있는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배상면주는 설명했다.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 휴대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김민지 기자



GKL, 한국문화재단과 관광산업 발전 맞손

재단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통예술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등이다. 유태열 GKL 사장(왼쪽)과 진옥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이 협약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은 지난 7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한국문화재단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통예술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등이다. 유태열 GKL 사장(왼쪽)과 진옥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이 협약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KL

공동주택의 소유자 수 산정 방법



여지운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라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그런데 이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 중 대표자 1인만이 소유자의 수로 산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예를 들어 하나의 동에 2개의 구분건물이 있고 1개의 구분건물을 5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수는 2인이므로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조합 설립 동의 의사만을 확인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상, 대표 1인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위 사건에서 조합은 “구분등기가 아니라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대표자 1명만을 구분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므로,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조합의 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구분소유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②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구분행위의 경우, 건물이 완성되

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이 완성되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이 경우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기존 건물의 경우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도시정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도 있는 이상 구분소유자들은 별개의 부동산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동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美 소비자 “배터리 최고 노트북은 LG그램”

컨슈머리포트 선정

LG전자 노트북 ‘LG그램’이 미국 유력 소비자전문지가 꼽은 가장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갖춘 노트북에 선정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출시된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을 평가해 발표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노트북 화면 밝기를 200니트(nit,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설정한 후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완전 충전된 배터리가 방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각각 측정했다.

인터넷 사용 조건은 노트북을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고 총 10개의 서로 다



른 웹사이트에 번갈아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사용 조건은 내부 저장소에 저장된 4K 해상도 동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LG전자가 출시한 13인치 초경량 노트북 ‘LG그램 13(사진)’은 웹서핑 환경에서 16.25시간을, 동영상 재생에서 11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포트는 “LG그램의 무게가 약 2.1파운드(약 997g)에 불과해 동급 크기 노트북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경쟁대상이 된 제품보다 두 배가량 큰 저장공간이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LG그램 13외에도 HP ‘스펙터폴리오(Spectre Folio)’, 구글 ‘픽셀북 고(Pixelbook Go)’, 애플 ‘맥북프로(MacBook Pro)’,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3(Surface Laptop 3)’ 등을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갖춘 노트북으로 선정했다.

LG그램은 17인치와 14인치 노트북 전체 성능 평가에서도 각각 평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한국거래소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기부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이 사용할 마스크 3만장과 개인손세정제 등 개인위생 물품을 후원했다고 9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해 감염에 대비하도록 거래소 긴급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물품은 거래소가 2014년부터 후원해 개소한 KRX 지역아동센터 35개소의 이용 아동 1050명과 거래소 임직원들이 매월 결연해 후원하는 한부모가정 아동 100명 등 총 1450명에 전달된다.

/송태하 기자 alvin@

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사선안전과장 장인숙 ▲원자력안전과장 김기환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 신중환 ▲통일교육원 파견 오명호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과 이우영 ▲산재보상정책과장 오태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이장호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임용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한식 ▲음부조지지원단장 조종래 ▲지역기업정책관 김성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문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소통정책관 김현기 ▲미디어정책국장 김대현 ▲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문영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담당 김상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구부장 박태영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유병채

◆통일부 ◊서기관 승진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영신

부음

▲강대순(전북중앙신문 명예회장)씨 별세, 강현덕·현우(정문건설)·현민(정신건설)·현국 부친상=9일 오전 2시, 전주시 송천동 삼성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63-247-1003 ▲공순근씨 별세, 공진희(충청타임즈 진천기자)씨 부친상=8일 오후 11시31분, 진천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43-532-4405